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국일문 앙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주간충현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홍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리라!

12월 5일부터 월요일새벽기도회
위임목사님 요한복음 강해 시작

성도는 기도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세상의 힘으로 존재하지 않고, 육신의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참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매일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시 57:8).

2005년을 돌아보며 2006년을 위한 최상의 준비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막 1:35). 이 기도의 불길은 우리교회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12월 5일) 새벽부터 위임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가 8장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청지기들은 빠짐없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내가 먼저 말씀으로 통한 기도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십시오. 매주 월요일마다 요한복음 속에 담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깨닫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금요일전)

믿는 자의 자력과 체험이 일치될 수가 있을까?

믿는 자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구원과 하나님 안에 확고하게 보증된 객관적인 구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성품이 같이 있기 때문이다(갈 5:17). 믿는 자의 지위와 믿는 자들의 경험의 실재를 볼 때에 믿는 자는 성자인 동시에 또한 죄인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절절치 못한 곳에 거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 안에 거하신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지만 또한 그분은 우리 대신에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롬 3:25)의 의를 보신다(엡 1:7, 2:13, 19, 3:6). 하나님은 우리의 죄상이 완전히 제거되는 그대에 이루어질 우리를 보신다.

신자들은 신자들의 자력과 체험(경험)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신자들의 자력(지위)에 관한 진리를 쉽게 여길 때 신자들에게 공포와 불확신의 문제가 생긴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은총의 위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에, 죄인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자들의 공로를 통하여 죄인을 받아줄 수 있는지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무엇인가 자신이 신을 행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의로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기를 소망하면서 또 결국 자신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하여 지낸다. 자기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경험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롬 2:17-20). 그래서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받는다. 결과적으로는 아직도 "종교적"인 지주 아래 은총의 종교를 놓으려 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사람은 그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하고 그의 구원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롬 3:10-12). 만일 인간의 의를 주장한다면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을 관제 못한 뿐만 아니라 저들의 눈은 인간을 두려워할 뿐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비록 구원의 근거가 99%가 그리스도도 인입이고 오직 1%만이 인간의 노력이라고 주장한다면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을 관제 속에 있는 진정한 구원의 보증과 하늘의 평화가 없다. 왜냐하

면 모두가 이 1%에 대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유일한 기초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에 있다(롬 3:25-26).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그의 완전한 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자격이 진실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롬 1:16-17).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체험(경험)을 소홀히 하는 데서 오는 안타까운 결과이다. 신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소홀히 여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어떤 사람들은 이 "만일"이라는 말을 배면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용서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과 기록하신 하나님의 교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죄와 불순종이 신자들의 자격을 취소할 수 없는 반면에 신자들이 체험(경험)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삶의 길에 큰 손상을 끼친다. 그리스도인의 자력과 삶의 경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의 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주권에는 믿는 자의 자력과 인간의 책임(경험)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의 사이에 필요한 균형처럼 지위(자격)와 경험 사이에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신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마 16:24). 구원에 관하여는 그리스도인의 자력과 그 경험에 의해서만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곧 그의 신앙생활 경험에 기초가 되어야 한다(딤후 4:13, 15). 자격을 설명할 때에는 명령, 책임, 의무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격이 주어질 후에는 책임을 져야한다(엡 4:22-24).

옛 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는 계속되는 투쟁이 있다. 옛 죄성이 없어지는 그대만이 믿는 자들의 경험과 그 자격이 일치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대가 오기까지, 믿는 자들은 그들의 경험이 그의 자격에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것을 믿고 간구해야 한다. 언제 이 완전함이 올 것인가(롬 8:23) 모든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만대 앞에 서야 한다. 각자 각자의 이 세상에서의 공력이 그날에는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고전 3:14-15).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요 5:29). 그리스도의 십만대 앞에서 그 옛 사람이 완전히 벗겨질 것이다. 우리의 죽음은 행실이 불에 타서 없어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보았던 것처럼 볼 수 있다. 그대부터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지위에 합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죄를 질 역량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지금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지위적으로 의롭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그대에 완전하게 의로워진다.

모든 믿는 자들은 분명히 이 두 가지 사실 곧 신성한 자력과 또 인간의 책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주어진 자격을 올바르게 이해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바울은 우리의 감정의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격이 우리에게 진정 실제(사실)인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했다(롬 6:11-13).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의 삶에서 받아들이기 뿐만 아니라 이 진리 위에서 우리의 삶을 행동으로 옮겨 인간의 책임을, 즉 믿음의 삶을 수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일상생활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엡 1:3).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는 부요함을 무시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빈곤한 자처럼 살고 있다.

TWO DIFFERENT WISE MEN

⁽¹⁾Now after Jesus was born in Bethlehem of Judea in the days of Herod the king, behold, magi from the east arrived in Jerusalem, saying, ⁽²⁾“Where is H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For we saw His star in the east,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 ⁽³⁾And they said to him,

“In Bethlehem of Judea, for so it has been written by the prophet, ⁽⁴⁾AND YOU, BETHLEHEM, LAND OF JUDAH, ARE BY NO MEANS LEAST AMONG THE LEADERS OF JUDAH; FOR OUT OF YOU SHALL COME FORTH A RULER, WHO WILL SHEPHERD MY PEOPLE ISRAEL.” (Matthew 2:1-6)

The Christmas story in today's Bible passage talks about the arrival of magi from the east. These wise men followed Christ's star from a distant land. They were so happy to find His star. Their hearts truly wanted to worship Him. After they met the Christ Child with Mary His mother, they presented Him with gold, frankincense, and myrrh. They did not listen to Herod the king, and followed a different pathway home from Bethlehem. Most Christians who read these verses forget that there were two different groups of wise men. The first were visitors to Jerusalem, and the second were Jerusalem's very own biblical scholars. When the visiting wise men asked Herod where they could find the Messiah, he called forth Jerusalem's chief priests and scribes to answer. These wise men told the eastern magi that the Messiah was to be born in Bethlehem of Judea. The eastern magi left to find Him.

Jerusalem's wise men studied God's word and taught God's people. They knew in their heads where Jesus was to be born, but they did not believe it in their hearts. They quoted Scripture to the eastern magi, "And you, Bethlehem, land of Judah, are by no means least among the leaders of Judah; for out of you shall come forth a ruler who will shepherd My people Israel"(v. 6). They remembered God's prophecy, but did nothing about it. They read about Christ's incarnation, but after they finally met Him, they did not believe Him to be the Savior. They rejected Him and treated Him like Satan. They even placed a crown of thorns on the King of kings. Their actions are not much different from many of today's churches who talk about Jesus, but do not really follow Him.

This day people all over the world proclaim Jesus Christ to be a very good man, a good teacher, a godly prophet, and a wonderful philosopher, but they do not believe He can save them. They do not look to Him for salvation,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Acts 16:31). Many people today know the Christmas story, as Jerusalem's wise men knew it, but knowing it and believing in it are two different things. Knowing that Jesus Christ is the Messiah who was born in Bethlehem does not bring salvation. Believing in Jesus Christ as the Messiah who was born in Bethlehem does bring salvation.

The wise men of Jerusalem knew the Messiah would reign, but they rejected His reign. They knew Jesus Christ as a great leader and teacher, but they still crucified Him. This is the real Christmas story, the sad story of truth. The foreign gentiles searched for the Messiah. They did not have a Bible, just a star. They waited for the world's Messiah to come. On the other side, Jerusalem's high scholars possessed many Bibles, but they just pretended to wait for His coming. They were hypocrites, like wolves in sheep's clothing. The prophets of old spoke to Jerusalem's wise men over 2,000 years ago, and they still speak to us in the 21st century. Unfortunately, too many Christian leaders talk about it, but they do not obey it. Even with their use of the Bible, they do not preach the message of the gospel, which is that Jesus Christ is Lord!

Why did the wise men of Jerusalem choose not to go down to Bethlehem on the night of Christ's birth? The main reason was their unbelief. They did not want to waste their precious time on something that may or may not have happened. They did not want to take any unnecessary chances or risks. Traveling at night was dangerous, and the thought of their being wrong would make others look down on them. They knew that Herod was not the true king of the Jews; he was not a son of David. They also knew that Christ's kingship threatened him; therefore, they were afraid of him. His power was greater to them than God's power. Overall, their hearts were not really looking for the Messiah. The wise men of the east took the risk and spent the time. They were willing to give up their lives to find Christ. Are you willing to follow Christ?

My dear friend, the two different groups of wise men is the Christmas story. Which group do you belong? Do you read your Bible? Do you really believe what it says? Would you travel at night, under political pressure, to see the Messiah? I hope your heart contains heavenly wisdom, and that you will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go after Jesus. Even though the world's way may sometimes appear easier and less dangerous, it is not the right path. Please do not be deceived. God's way is the only way, and His way is only through Jesus Christ. Praise God for sending us His Son, our Savior, the Lord Jesus Christ. 🙏

다움주일 설교

두 부류의 지혜자

“^㉑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㉒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 ^㉓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㉔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마태복음 2:1-6)



김성관 목사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먼 곳에서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별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난 그들은 예물로 가져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그 후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 두 부류의 지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루살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가야 메시아를 찾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헤롯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대답을 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학자들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찾기 위해 길을 재촉했습니다.

성경학자들

예루살렘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6절).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실 것에 대해 알았지만,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조차도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배척했고 사단과 같이 어겼습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께 가서 면류관을 씌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분을 따르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성인, 훌륭한 교사, 신령한 예언자 또는 위대한 철학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는 말씀과는 달리 구원을 얻기 위해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현대인치고 크리스마스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학자들처럼 크리스마스에 대해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구원을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야로 믿는 믿음입니다.

동방박사들

예루살렘에 있던 학자들은 메시아가 통치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지도자로 교사로 여기면서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실입니다. 너무나 슬프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하나의 별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반면 예루살렘의 최고 학자들에게는 많은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위선자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2천 년 전에 예루살렘의 학자들에게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해 말한 할 뿐 자신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학자들은 그리스도가 탄생한 밤에 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에 있습니다. 그들은 불확실한 일에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여행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잘못된 선민의식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이 유대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출현이 헤롯의 왕권을 위협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의 학자들은 헤롯 앞에서 더욱 몸을 사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헤롯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동방박사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니까? 마르듯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꺼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편이하게 다른 두 부류의 학자들의 이야기는 분명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한밤중에 메시아를 찾는 여행을 감행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때문입니다. 때때로 세상의 길이 더 쉽고 덜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거듭 말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외길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그리스도와 함께 한 감사 (요일 2:5-6)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감사가 넘쳐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요일 2:1). 이 분은 화복제물이 되었다(요일 2:2).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요일 2:3,4). 말씀대로 사는 우리를 향해서 말한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요일 2:5). 말씀을 지키며 우리의 삶은 온전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온전해지려고 한다. 말씀보다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며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만 한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요일 2:6). 우리는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복음을 깨달아야 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요일 2:15-17).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요일 2:28,29). 그리스도안에 거하며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 영의 눈을 열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감사는 무엇인가? 무엇을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복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해야 한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세상의 축복만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만 받으려고 하지 않는가? 이 모습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복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해야 한다. 말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 가장 고귀한 자리를 버리고 낮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엡 4:21-24). "나 행한 것 죄뿐이니..."(찬 332장). 우리의 공로, 노력, 지식을 버려야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마 11:25).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있게 된다(엡 3:11-12). "자녀들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리요"(요일 2:12).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골 1:26-27).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행 16:31). 모든 해답은 예수님께 있다(롬 3:24-26).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놓쳐 버리는 큰 실수를 하고 있다.

가장 큰 실수

십자가는 신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전 1:17,18).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십자가를 무시한다. 십자가 대신에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는 시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자주 일어난다(롬 1:22,23). 자신의 명예만을 중요시하며 훌륭한 경력만을 자랑

하고 한다. 그러나 주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신다(벧전 5:6).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 14:11). 겸손히 십자가만을 바라보라. 우리가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릴 수 있다.

풍족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감사

우리는 풍족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감사해야 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라.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감사하며 기도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가(요 6:11) 우리는 자칫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풍족하신 분이다(창 1:28-30). 또한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모든 것에 넘치도록 풍족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감사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감사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고전 11:23). 죄인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참으로 놀라운 은총이 아닌가? 진실로 감사하자. 혹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드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기묘한 중에 기묘하니 진흙과 같은 날 빛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찬 217장).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현장을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 있는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갈 3:1). 이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가 아닌가? 예수님이 떠나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자.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실로 기뻐하자. 다른 말, 다른 복음을 버리고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만났으므로 감사하게 하소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여 주소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 감사, 찬송이 넘칠 것 일한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 하시고 죄없이 십자가 지셨네"(찬 192장). 아멘.

전하며 받은 은혜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은 교회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동일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저희 온경장로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생각도 않고 금년에도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오직 주님만 믿고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선교지에서는 놀랍게도 감기도, 관절염도, 허리 디스크도 거짓말 같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루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옷은 땀에 젖고 신발은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도, 종일토록 기쁜 마음으로 찬송 부르는 한 심령이라도 더 만나서 복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환경이 열악하여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순전한 영

혼들을 찾아 험한 오지로 갔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준비를 하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전도지를 읽고 현지어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아멘' 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진지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은혜를 받았습다.

돌이켜보면 저희들이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직접 다 하였고, 우리는 그저 성령의 불꽃된 도구로서의 역할밖에 한 것이 없습다.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왔으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7)하셨으니, 이제는 다만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옥토에 떨어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여야 되겠다고 다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 동안 죄인인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대선 (온빛장로)

온 성도가 동참하는 더욱더 영적으로 준비된 선교



전 홍현 (장로, 선교위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선교인 줄 알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충현교회 위에 은총을 베푸셔서 2005년도에는 2,700명 이상의 단기선교사를 열방으로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단기 선교를 시작한 지난 2002년 이래로 4년 동안 무려 7천명 이상의 평신도 선교사들이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은혜입니다. 이 일로 인해 자만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충현의 온 성도는 더욱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선교는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 날까지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온 성도가 동참하는 선교

선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전문화된 선교사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선교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는 선교입니다. 따라서 충현교회는 모든 성도가 선교에 동참하고 직접 현지로 나가는 선교를 지향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선교의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물론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충현의 온 성도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에 힘을 다해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준비된 선교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영적 전투입니다. 따라서 선교를 올바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현교회 선교방향이 순종하며 선교지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바로 서서 교회 생활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기선교의 각 팀과 선교 팀원들은 선교훈련(CMTC)과 팀 모임으로 철저히 선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하면 현지에서도 인간의 계획과 경험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도하시는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006년 단기선교 방향

충현교회 2006년도의 선교적 목표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제 성구에 따라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 증거자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지속적인 단기선교팀과 단기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 증거를 통해서 현지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현지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곳을 그 현지인들이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단기선교의 사역원칙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종전의 방법대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통역 및 안내자의 도움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예선은 반드시 투명하고 철저히 기록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선교 대상 국가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의 문이 열린 곳이면 어디든 그 대상이 됩니다.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어디든지 가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선교의 문은 계속 열려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기도하는 중에 부지런히 열려 있는 나라와 민족을 찾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많은 선교팀들을 그 나라에 파송하겠습니다.

단기선교 팀원의 자격

팀원의 자격 역시 종전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교회 등록하고 만 1년이 지난 세례 교인으로서 공직회 출석, 십일조 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CMTC 및 팀 훈련을 필히 마쳐야 하고 면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1인 1명 이상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다 교회 교인으로 우리 교회 단기선교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교회 당회장 추천으로 본 교회 CMTC와 팀 훈련에 참가해야 합니다.

팀 면담 일정

단기선교팀들에 대한 면담은 더욱더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차 면담은 팀 신청 2주 후에 합니다. 선교위원들이 각 팀의 팀장 및 총무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 내용은 선교지, 선교기간, 선교준비 등과 함께 선교지에 대한 영적 관심도 및 현지어 교육계획서를 점검합니다. 2차 심사는 파송 1개월 전에 합니다. 영적 준비와 언어 및 행정 사항으로 구분하여 세심하게 심사할 계획입니다. 먼저 영적 준비는 선교위원회 지도목사들이 팀장을 포함한 팀 전원 철야기도회 시간에 함께 참석하여 팀원들의 선교 이해, 교회 헌신, 공예배 참석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및 행정사항은 선교위원들이 팀장을 포함한 팀 전원을 대상으로 언어준비, 1인 1명 전도, 건강 상태, 전도 방법 등을 심사할 것입니다. 심사 일시는 선교위원회에서 지정해 줍니다. 3차 점검은 파송 2주 전에 합니다. 최종 점검은 선교위원들이 팀 전원을 대상으로 최종 준비 상태 및 건강 상태, 비자 등을 확인할 것입니다.

선교훈련(CMTC)과 1일 수련회

선교훈련(CMTC)은 단기선교 팀원들의 철저한 영적 준비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 단기선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CMTC를 수료해야 합니다. 선교훈련은 기존의 2주 과정(2일 3시간 수강과 1일 수련회)로 합니다.

먼저 2주 과정은 첫째 날에 영성훈련 중심으로 목사들이 강사가 되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 세계 선교 정세 등을 교육합니다. 둘째 날은 선교정책 및 선교현장 중심으로 강도들이 강사가 되어 2006년도 선교방향, 선교사례, 사역 경험 및 개선사항 등을 강의할 것입니다.

1일 수련회는 연중 3회 실시하며 이 중 1회 이상 참석해야만 단기선교를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선교 지원자들은 CMTC 과정의 일환으로 2주 과정과 함께 1일 수련회에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1일 수련회는 먼저 오전에 목사들을 강사로 선교영성 훈련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선교 일반훈련으로 팀장, 총무 등 임원의 직무별 훈련을 각 분과 및 전문가를 강사로 선교 현지 정보 토의를 실시합니다.

팀 및 팀장 훈련

팀 훈련 역시 기존대로 팀 구성에서 파송까지 3개월 동안 20회 이상 자체 팀 훈련을 가집니다. 팀 훈련은 팀장의 주관 하에 영성 훈련(금요일) 참석, 2차 심사 전까지 2회 이상 교수 지도목사(인도, 사도행전 2:42), 선교지 연구, 팀워크 훈련, 봉사훈련(자발성 2회 이상 참가), 전도훈련(3차 면담 전까지 1인 1명 전도), 기도훈련(주일 선교기도회 참석, 기도회, 자체 철야기도회, 릴레이 금식기도 등), 언어훈련, 안전훈련 등으로 진행합니다.

단기선교팀을 이끌어 갈 팀장 훈련은 말씀훈련 및 직무훈련 2회와 팀장과 팀원이 모두 참여하는 수련회 1회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말씀훈련과 직무훈련은 영적인 선교가 되기 위한 팀장의 자세, 선교지에서의 예배 인도를 첫째 날에 교육하고, 둘째 날은 행정관리 제반 사항에 대한 것으로 팀 훈련과 팀 평가방법을 교육합니다. 그리고 선교위원회와 강사들은 후 훈련자 개인 파일을 만들어 각 개인의 훈련 상황과 훈련 효과를 철저히 들여다 볼 것입니다. 그러하여 2006년도에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철저히 준비된 자로서 단기선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선교

선교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도구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선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선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하여 전도받은 타 민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믿는 선교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온 성도가 동참하는 더욱더 영적으로 준비된 선교

또 다시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선교는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죄인들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유익한 열린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다하여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됩시다. 충현의 온 성도들은 선교의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동참하여 더욱더 영적으로 준비된 선교를 합시다.

교만한 모습을 회개하며!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비록 교회 다닌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다녔던 제 모습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철신을 훨씬 넘기신 어머니, 고집스런 남편, 그리고 4살 된 아들이! 모두를 내 힘으로 전도했다며 마음껏 착각하며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 생활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함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정작 결정적인 때의 결정적자는 '나'였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한 지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산하히 부수지는 듯했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 모두 잃어 버려도... 내가 꾀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 때도 많은 위로받겠네"(찬 367장).

찬송을 부르며 저절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맞지! 맞아! 내 뜻대로 마음대로 그리스도 하소서"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한 자의 하나님, 높은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낮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매일 말씀으로 깨어지며 열심히 십자가를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혜원(성도, 새가족부)

십자가만 커지게 하소서

청지기 훈련 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명, 건강, 내 자녀의 성공 등이 세상의 것을 위한 기도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바로 순종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 지식, 학식 등은 바로 그분의 기쁘고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드러내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므로써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생당하는 것도 기쁨으로 생각하며 진정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또 그 말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에 겸손하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는 커지고 나 자신은 작아져야 합니다. 믿어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박명근 (집사, 13교구)

비로소 깨달았죠!

주님!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게 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황하던 때에 주님을 만난 이후, 제 열서서 항상 도와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란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의 첫 기도는 제 가족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가장 늦게 주님을 영접할 것 같았던 제 육신의 아버님이 가장 먼저 주님을 믿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아버지는 주일 예배 때에 설교 말씀에 집중하시고, 서론 순것과 몸것으로 수화를 열심히 따라하십니다. 그 모습을 대하면 제 마음이 호탕한데, 주님은 저보다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어느 주일 전날 밤, 늦게까지 주일 성수를 위해 이것 저것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는 제게 아버지가 다가오셔서 일찍 자라시면서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렇듯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잘 섬겨야겠다고 마음먹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전부터 아버지의 눈이 좋지 않으신데 성경 말씀을 보려면 안경을 벗고 가까이 봐야 겨우 읽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좋아지도록 도와 주세요. 빨리 잘 아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기가 무리가 없도록, 급급한 심령에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도록 도와 주세요. 또, 뒤늦게 수화를 배우시는 만큼 아버지께서 더 뜨거운 열정으로 수화를 배우게 하셔서 다른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영혼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면서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저의 어머니와 오빠, 두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저희 가족 모두 천국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부끄럽없이 전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이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저의 삶과 아버지의 삶마저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를 통해 주 안에서 불기둥이 없음을 보여 주신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김정주 (예배다부)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너무나 작은 존재인 나를 '사랑하는 나의 딸'이라고 불러 주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매일 매일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의 삶을 채워 주시니 정말로 감사하다. 무엇보다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 없고 필요 없는 존재인데, 매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고작 그런 사람인데 정말 아무 조건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부족한 나를 형제대로 만들어 가려 하신다. 아직 끝나는 않았지만 2005년 한 해 동안도 역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나를 만들어 가셨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습들을 통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날마다 보여 주셨다. 가정에서의 내 모습, 학교에서의 내 모습, 교회에서의 내 모습을 통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과 죄의 모습을 가졌는지 보여 주셨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낙심되고 피로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고,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통하여 주가 하나님임을 드러내려 하신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말한다. 2005년 한 해 동안 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배웠다.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도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

으로 만드실 것을 믿는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불행도 많았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다. 또, 나의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위해 훈련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속한 대학부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 사역을 통해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먼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주셨고, 동역자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도 허락하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렇게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성한 손길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인도하셨고, 그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아직 결과를 모르는 일도 있지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냥 죽을 수도 있던데, 나 한 존재였는데, 나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손해 보실 것도 없는데 아무 조건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집쟁이인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라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주님을 찬양한다.

전혜정 (대학부)



교회 탐방 89 박원화 집사 가정(4교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녀군 가정을 통하여 미리 천국을 맛보게 하셨다. 그래서 가정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미래의 천국을 사모하지만, 아름다운 가정을 보면서 어떻게 이 미 이루어진 천국을 보기도 한다. 종언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천국을 체험한다. 박원화 안수집사의 가정은 이렇게 살면서 주께 영광을 돌린다.

집사님 가정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은퇴하셔서 미국에 계신 어머니를 중심으로 저의 가정과 동생들 가정까지 모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화 안수집사)

대가족이 한 사람의 이빨자도 없이 모두 서슴없이 굳은 믿음을 지켜 온 근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20여 년간 끊이지 않고 드린 가정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가정의 믿음 생활의 원칙입니다. (유준남 집사)

십자가가 세워진 믿음의 가정

가장인 집사님은 가정예배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저는 믿는 삶의 삶을 통한 깨달음을 소재로 가정예배 때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오며가며 늘 주님의 음성에게 귀를 기울이지요. (박원화 안수집사)

가정이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는 아내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재장인 남편을 어떻게 도우시나요?

저는 주로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애를 씁니다. 한 가지 예로 아이들이 금요인양에 참석시키기 위해 금요인양 후에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매뉴와 저녁 식사를 하는 등의 방법을 공리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레 믿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아이들이 잘 출석합니다. (유준남 집사)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의 기회를 주셨군요.

그 결과로 소개해 주실까요?

지금은 우리 부부가 아이들을 양육하지만 언젠가는 소년여와 호선여가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겠다는 믿음이 들 만큼 두 아이가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유준남 집사)

하나님께서 아직 어린 소년여를 늘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늘 다시 제 자리에 돌려 놓으십니다. (박원화 안수집사)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 받으셨군요. 믿음을 확고하게 한 일과를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인본주의적인 과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공부에 전념해야 한다는 핑계로 성가대 활동을 잠시 멈춘 적이 있었어요. 그 때 아버지께서 저의 영적 상태를 즉각 알아채시고 제가 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유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고집을 피웠죠. 그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레 그 선생님과 단절하게 하셨고 제가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셨어요. 그것은 제게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그 때, 제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확실히 알았죠. (박소선)

제가 성가대 요단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저의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저는 성가대를 할 수 있었고, 우리를 주 안에서 양육하려는 부모님의 사랑을 보았고 더욱 큰 예수님의 사랑도 깨달았습니다. (박소연)

은 식구가 다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선교요기를 말씀해 주실까요?

작년에 막대한 선교를 못 가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올에는 가족 모두 선교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박원화 안수집사)

아이들이 스스로 선교에 동참합니다. (유준남 집사)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란 것이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어요. (박소연)

사실에 불만족 부는 가정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신다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입니다. 집안일은 함께 합니다. (박소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이 감사해요. (박소연)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더욱 노력할 점은?

저는 가정예배 때 영적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더욱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더 많이 깨달은 바를 전하겠습니다. (박원화 안수집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십자가 위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유준남 집사)

예수님만 사랑하는 믿음을 잘 이어 받겠습니다. (박소선, 박소연) (전집집)

네 영혼이 주를 찬양



찬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로써로 삼으시고 죄 용서 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고, 부르고,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찬 정말 사랑하는 찬송입니다. 모든 찬송이 저에게 큰 은혜이지만 이 찬송이 제에게만 남 다른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여의도에서 열린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피로한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의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嗎” 선글라스를 낀 어느 외국 여인이 이 찬송을 은혜롭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찬양 후 인사하는데 이 여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볼 수는 없으나 찬양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고마워 이 찬송을 주님께 드린다고 간증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신의 몸 전부를 내어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의 심령에 내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크신 사랑 앞에 나는 얼마나 내 마음으로 살아있는가? 얼마나 회개하며 울었는지 그 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목이 메입니다. “허물을 두루마리 삼고 바단을 먹물 삼아도 한 줄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주님, 감사합니다. 대속의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전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이 찬송 영원토록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송명(복자, 호신나 찬양대)

새 · 가 · 족 · 을 · 한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918	김인정	19	대학부	이상혜(목)	2932	목미	19	외선부	지숙자(목)
2919	유영기	19	청년1부	박태남(목)	2933	알맹태현	19	외선부	지르길(목)
2920	열혜영	6	청년1부		2934	불원	19	외선부	비트제(목)
2921	전영민	1	청년1부	박태남(목)	2935	백미	19	외선부	비트제(목)
2922	김동진	1	청년1부	이보선(목)	2936	한영관	13	청년2부	
2923	김상철	6	청년1부	김신국(목)	2937	신철수	19	청년1부	남정숙(목)
2924	김유진	19	청년1부	전영민(목)	2938	하진주	19	대학부	김정림(목)
2925	김유정	19	대학부	전영민(목)	2939	최희원	19	대학부	김희선(목)
2926	김상모	9	청년2부	김신국(목)	2940	양정분	3	청년1부	
2927	전 철	1	청년1부		2941	조재한	14	청년2부	
2928	권명신	1	청년2부		2942	이정자	4	청년1부	전홍용(목)
2929	이경희	17	청년2부	이영숙(목)	2943	정재원	1	청년1부	
2930	한숙자	1	청년2부	김정림(목)	2944	김민강	19	중등2부	김혜진(목)
2931	캐럴	19	외선부	이신동(목)					

※ 중형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